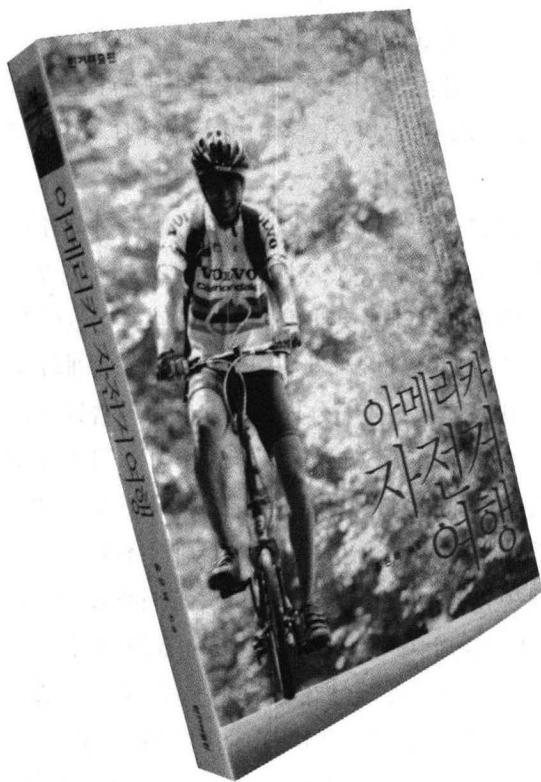


# 물폭탄을 맞은 사람들의 무기력, 무기력한 사람들의 평화주의

##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글\_ 임동헌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홍은택 지음 | 한겨레출판 | 401쪽 | 값 15,000원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는 물난리의 현장을 보는 심정은 쓰라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 내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농사를 짓는 축이었다. 더욱 쓰라린 심정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절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절망하는 표정을 별로 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재해를 겪고 나면 소송을 한다 어쩐다 법석을 떠는 도회지 사람들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똑같은 인간인데도 표정이 천차만별인 까닭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다.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자연을 멀리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차이였다.

그런데 필자는 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 화가 치솟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도시에 살기 때문인가. 그와는 무관하다. 예컨대, 이런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수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주어지는 혜택을 보자. 사망·실종자에게 2,000만 원, 부상자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 주택 전파의 경우 1,400만 원, 반파는 7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이같은 액수는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의 명치를 치는 또 하나의 ‘재난’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주민세를 내고 있으니 정부는 마땅히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재난을 당하면 재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집이 전파된 사람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한다면 그 돈으로는 컨테이너도 살 수 없다. 사망 실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일은 아니지만 2,000만 원이라니, 계곡 물에 떠내려 가다가 건져 올려진 소가 웃을 일이다.

어쨌거나, 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필자는 지원금 규모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금 액수 때문에 강원도 촌사람들이 분개했다는 뉴스는 들려오지 않았다. 체념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인가. 아닐 것이다. 역시, 자연친화적인 그들의 삶이 화내는 것을 억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 권의 책을 떠올린다. 최근에 나온 홍은택 씨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이다. 물난리를 겪은 이들에 대한 안

###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타카움 운운해 놓고 난데없이 무슨 여행책을 들먹이는가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여행책 속의 이야기에 있다.

이 책은 80일 동안 6,400킬로미터를 달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페달을 밟아 하루에 80킬로미터를 달린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 고행의 길에는 타이어 펑크 열 한 번, 영하 1도에서 영상 43도까지의 온도 변화, 해발 0미터에서 3463미터의 고도 변화 등의 기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수치에 불과할 뿐 흥은택씨 여행기의 매혹은 엉뚱한 데서 빛을 발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심술궂은 자동차 운전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자전거 여행자 때문에 운전이 지장을 받은 것에 화가나 차창을 내리고 야유를 퍼붓고는 썩하고 달려 나간다. 이때 자전거 여행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맞설 힘이 없다.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흥은택 씨는 무기력이라고 부르면서, 상대와 맞설 힘이 없어 무기력한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속도전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점점 그악해지고, 속도전에 무관심한 사람들일수록 무시간성의 순둥이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주의자 면모와 일치한다. 그들은 지금 가족과 집을 잃은 슬픔에만 충실할 뿐 지원금의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지원금으로 방 한 칸짜리 집이나마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홍 씨의 책에는 또 여행지에 관한 이야기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쿠키 레이디'로 불리는 할머니 준 커리이다. 준 커리는 버지니아주 샬럿즈빌에서 사는데, 노파의 집이 있는 곳은 자전거 여행자들이 넘어야 하는 애팔래치아 산맥의 정상 부분이다. 이곳에 이르면 자전거 여행자들은 기진맥진하게 마련이다. 준 커리는 여행자들을 위해 과자를 구워주고, 바이크 하우스에서 묵어가도록 해준다. 바이크 하우스를 팔라는 제안도 받지만 준 커리는 매번 그 제안을 거절해 왔다. '자전거 여행자들은 나의 가족과 다름없다'는 확신에서였다. 홍 씨는 준 커리가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한다. 이 노파는 한 달에 30만 원 가량의 노후 연금을 받고, 의료보험료는 한 달에 39만 원 가량을 내는 적자 인생이다. 모자라는 금액은 작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메꿔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거의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이다.

노파는 왜 애팔래치아 산맥의 집을 떠나지 않는가. 딸이 뉴욕에서 번듯하게 살고 있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바이크 하우스는 내 생명의 일부'라는 인식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자식들을 도회지로 내보내고 산동네의 뉴욕에서 살다가 물난리를 겪은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일치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준 커리는 43년 동안 이웃을 위해 간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바이크 하우스를 찾은 여행자들은 준 커리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바이크 하우스를 거쳐 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자 준 커리가 입원한 병실에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보낸 위문편지, 꽃, 인형이 쇠도했다. 이 대목 역시 불행한 일을 겪은 강원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이웃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과 일치한다.

미국과 한국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님은꼴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 답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다. 바이크들은 순전히 근육만으로 자신의 몸을 이동시키며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우화적으로 얘기할 때 이들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다. 무기력하지만, 가장 자연 친화적인 존재이므로 이들은 모두 자연의 일부와 같다. 강원도 산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산자락을 일궈 작은 밭에 감자를 심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삶에 만족할 뿐 문명적인 삶을 욕망하지 않았다. 계곡 물에 떠내려가는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는 모습을 담아낸 텔레비전 화면이 그 증거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다. 연금보다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준 커리의 삶은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받아 보금자리를 장만해야 하는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동일선상에 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부동산 세금 폭탄을 거세게 비난하던 강남에 물난리가 났다면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남의 탓에 바빴을 것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변함없는 평화의 물결을 다시 확인한다. 텔레비전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모금 방송을 펼치고 있는데, 가없는 평화주의자들의 무기력을 응원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사람들 역시 가난한 평화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노릇을 어찌하라. 자전거 타는 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현실은 여전히 딱하다. **한문**